

‘충청권 평생직업 교육대학’ 충북도립대,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월 12일까지...28일 합격자 발표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립대는 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대기업 취업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졸업예정자를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 교육부터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모의 면접 프로그램, 실전 취업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졸업생들이 주로 입사한 곳은 LX하우시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녹십자, 종근당, 한독제약 등 대기업과 지역 내 중견기업 등이었다.

이 밖에도 ‘명륜재(明倫齋)’라는 공직 진출반을 운영, 학생들의 공직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가 운영하는 충청권 평생직업 교육대학인 충북도립대가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공학계열에서 건설안전방재학과와 환경보건학과(3년제),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컴퓨터공학과(3년제),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등이며, 인문 사회계열에서 자치행정학과(주·야), 경찰행정학과(3년제), 토지행정학과 등이다.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작업치료학과(3년제) 등 자연과학 계열도 포함됐다.

최근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후진학 선도형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산학 협력을 통한 실무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명륜재는 전담 지도교수와 총괄 지도 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공직 시험과 진로 탐색 및 학업 상담·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특강 및 특별강사 섭외, 반기별 테스트와 더불어 장학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개별적 학습량에 대한 목표 관리제,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펼치고 있다.

원서는 1월 12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서 제출할 수 있고, 서류는 1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내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8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인재를 유치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고자 전국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❶

